

LEE HEA SUN KIM YU JIN



이혜선
LEE HEA SUN

바늘과 함께 지낸 날들이 어찌다...
때로는 이야기와 함께 때로는 침묵으로
기다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웃음이 있어 멈출 수 없었던 한땀한땀...
바늘끝으로 속삭인 인내와 행복의 언어였습니다.



김유진
KIM YU JIN

13년 전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남편처럼 보기만 해도 설레고, 자식처럼 한 없이 사랑스럽기도 하고,
부모님처럼 아픈 마음을 위안 받기도 하고,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기도 합니다.
태고로 시작한 바느질이 어느덧 저의 삶에 일부가 되었습니다.
추운 날씨에 먼 길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더불어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



이혜선 × 김유진 작가 초대전
LEE HEA SUN X KIM YU JIN INVITATIONAL EXHIBITION

2017. 12. 5. (TUE)
- 12. 15. (FRI)

장 소
광주과학기술원 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

관람시간 오프닝 및 작가와의 만남
10시~18시 (주말 오픈) 12. 5. (TUE) 15시

광주과학기술원 | 도서관
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| Library

바
늘
끝
감성

INVITATIONAL EXHIBITION



LEE HEA SUN

이혜선 작가



KIM YU JIN

김유진 작가



가족 | 24x14



봄을 담은 바구니 | 23x18



수줍은 미소 | 30x30